

# 국화꽃 수백송이 수북이… 희생자 기리기 위해 발길 이어져

## Q 르포 |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 추모공간

“그날 젊은애들이 이태원역에서 친구를 만나서 깔깔대면서 손 붙들고 가는 걸 봤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나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

이태원 역사 곳곳에는 ‘핼러윈 행사 취소(Halloween canceled.)’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가 붙어 있다.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 앞에 배치된 두 명의 보안 요원이 통제된 구역이라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찾았다”고 방문 목적을 말하자 길을 터줬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하얀색 국화꽃 수백송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초록색 소주병과 흰색 막걸리가 든 술병, 형형색색의 음료 수가 가득 든 일회용 컵 등이 꽂다발 사이사이에 놓였다. 이외에 엠엔엠즈(M&M's) 초콜릿, 몰티져스 초콜릿볼, 스키플즈 요거트 캔디 봉지도 눈에 띄었다.

참사 현장인 해밀턴호텔 골목바닥에 나뒹굴던 희생자의 신발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떤 이는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삼선슬리퍼를 추모 공간에 두고 갔다. 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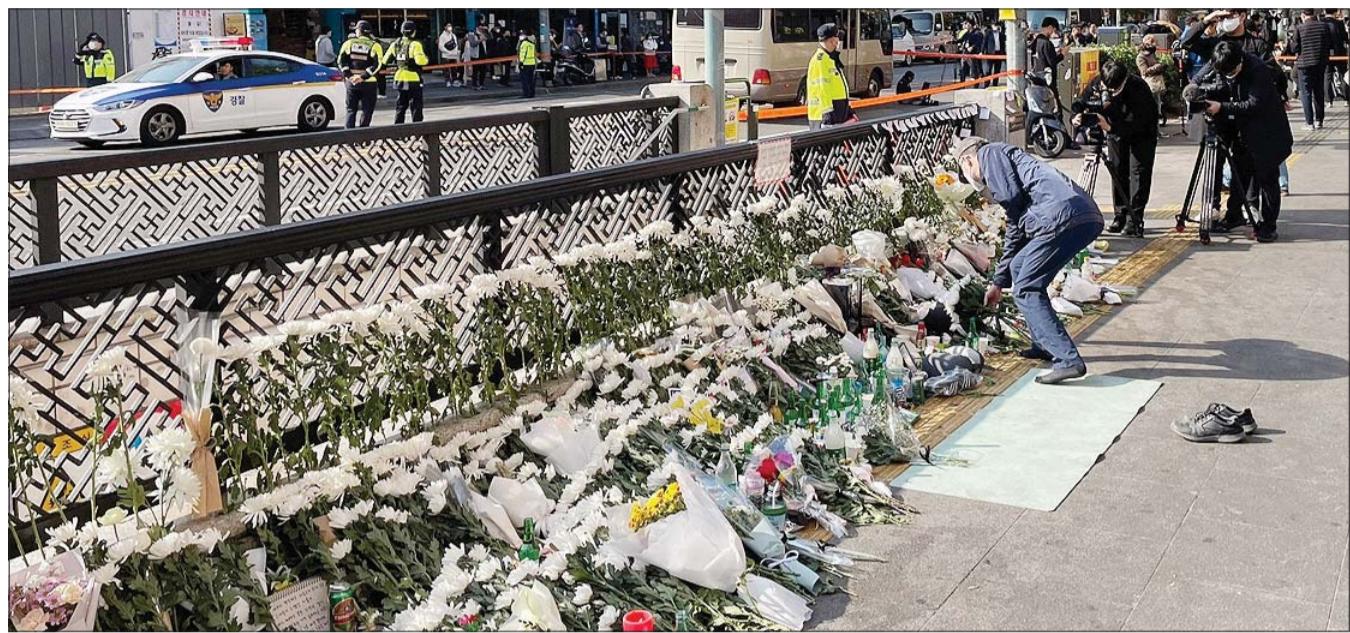
곳곳에 ‘핼러윈 행사 취소’ 풋말 국화꽃 사이사이 과자·음료 놓여

분향소엔 희생자 영정사진 대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글씨 적어 “시위때처럼 인력 투입 했어야 있어선 안될 일… 마음 미어져”

튀기 과자는 제기(祭器·제사 때 쓰는 그릇)로 변했고, 빼빼로 과자는 제사 때 태우는 향(香) 역할을 했다. 뺑튀기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초콜릿 세덩이와 소주잔 위에 가로로 놓인 빼빼로 과자가 추모 공간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만난 윤여균(77세) 씨는 “지난 수십년간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겼다”면서 “핼러윈 데이 때 녹사평역에서 내려 이태원역 쪽으로 걸어오면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보인다.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는 사람이 많아서 녹사평역에서 못내리고 이태원역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태원역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번 출구로 나오는데 25분이 걸렸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서 “그날 따라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 어린 친구들이 많았다. (사



31일 오전 한 시민이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고를 겪은) 부모들 심정이 어땠겠냐”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이태원 상인 A씨는 “우리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 핼러윈 데이라고 밤새고 집에 안 오는 날이 있었는데 부모들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서 “딸이 지금은 워싱턴에 사는데 어제 울면서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나?’고. 애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을 뒤로 하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가 있는 녹사평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영정사진 대신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글씨가 적힌 판넬이 놓여 있었다. 이날 오전 분향소에서 헌화용 국화를 건네받은 시민들은

헌화 후 조용히 묵념하고 자리를 떴다.

금천구에서 온 20대 정도 씨는 “저도 이번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올 계획이었다”면서 “원래 네 명이서 같이 오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올해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가지 말자고 해서 안 갔다. 사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가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예전에 시위했을 때처럼 경찰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거나 도로를 통제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걸 예측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황망하다”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온 김병수(50대) 씨

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함께 겪게 돼 가슴이 미어져서 오게 됐다”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동작구 노량진에서 온 이솔(20대) 씨는 “피해자 중 제 또래인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안 좋아서 분향소를 찾았다”며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10만명이 모인다는 걸 예상했으면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세세하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그만큼 충분히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 尹 대통령 내외, 희생자 조문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찾아

김대기 비서실장 등도 함께 조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31일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해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9시 30분쯤 분향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목례했다. 조문 후 별도 발언 없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 외에는 공개일

정을 잡지 않았다.

조문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복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함께 조문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는 서울시청광장,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 등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됐으며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11월 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을 받는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

## 10만명 인파 이동 위한 일방통행 등 안전조치 없어

### » 1면 ‘이태원은 행정참사’ 서 계속

특히 특정 장소로 일시에 10만여명이 몰린 인파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방통행 등의 안전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15일 개최된 이태원지구촌 축제에 이틀간 40만명이 방문한 바 있어 이번 혼란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유관 당국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힘을 보태야 했던 서울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100여만명이 몰렸는데도 무난하게 행사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행정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는 비록 한화 그룹이란 주최측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안전심의를 하는 한편 시·구·경찰서·소방서 등이 합동 안전본부를 설치해 지하철 무정차 등 순간적 인파밀집상황에 종합적으로 대비했다.

여타 행사처럼 합동대응체계를 갖췄다면 시시각각 불어나는 사고현장의 인

피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 했을 것이라 지적이다. 지난 30일 유럽 출장 도중 급기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다.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태원 현장에 주모차 나왔다는 정모 씨(56)는 “노마스크 이후 시위현장이나 대규모 행사장에 참가하는 인파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한번만 고려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았을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책임띠넘기기를 하고 있어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주력 수출품목’ 반도체 생산 4.5% 줄어

### » 1면 ‘생산·소비·투자 또’ 서 계속

특히, 지난 달에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1.8%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차금속의 경우 태풍 피해로 일부 철강업체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량이 줄어 1년 전보다 15.7%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시스템반도체, D램 등에서 생산이 줄며 4.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년 대비 1.8% 줄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5%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여파와 정보기술(IT) 전방산업 업황 불황으로 수요가 줄면서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 또한 0.3%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회복세에도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며 예술·스포츠·여가(-3.3%), 도소매업(-2.1%), 운수·창고(-0.5%) 등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

매판매액은 지난 3월(-0.7%)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8월(4.4%) 다시 반등했지만 이번에 또 감소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7%)와 음식료품, 의약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5.0%) 판매가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어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